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와서

- 선사·고대 유물을 통해 본 초기 인류의 경제 활동과 기술 혁신

20230847 경제학과 황수민

## 목차

1. 서론: 경제학도,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2. 구석기 시대: 생존을 위한 자원 확보와 기술의 태동
3. 신석기 시대: 정착 생활과 잉여 경제의 서막
4. 청동기 시대: 기술 혁신과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화
5. 결론: 유물이 말해주는 경제의 역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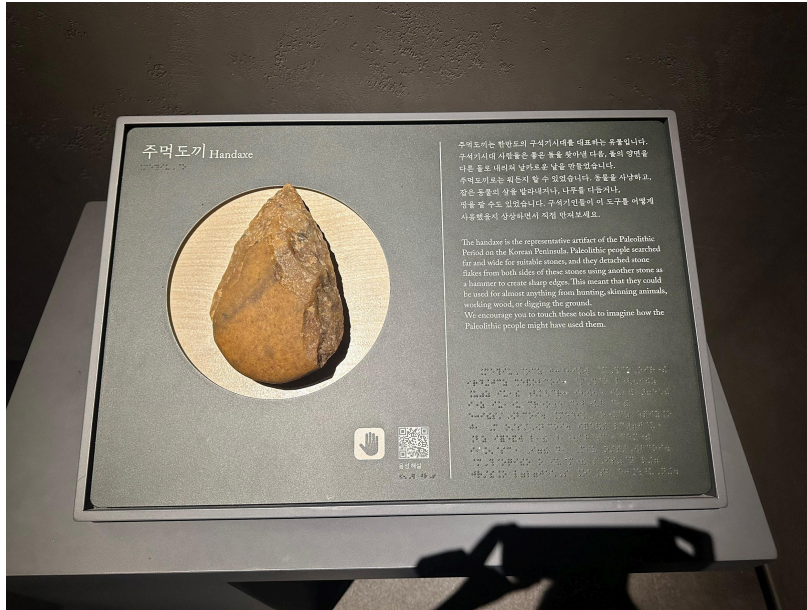
## 1. 경제학도,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시장 구조와 수치화된 경제 지표 뒤에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진보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며 오늘날의 고도화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인류의 첫 ‘경제적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졌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을 답사했다.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문명을 일구어 왔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경제 사료관이었다. 본 답사기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단순 도구부터 청동기 시대의 정교한 금속 무기까지, 각 시대의 유물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술 혁신이 인류의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2. 구석기 시대: 생존을 위한 자원 확보와 기술의 태동

구석기 시대 전시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주먹도끼’였다. 주먹도끼는 인류가 외부 자원을 변형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원시적인 ‘생산 수단’이다. 단순히 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사냥, 가죽 처리, 나무 다듬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이 도구는 인류가 지능을 사용하여 자연환경을 제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했다. 수양개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 뼈들은 당시 인류가 주변의 동물을 체계적으로 사냥하고 식량 자원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류가 채집 경제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사냥 경제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 3. 신석기 시대: 정착 생활과 잉여 경제의 서막

신석기 시대로 들어서며 인류는 이동 생활을 멈추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정착은 곧 토기 제작과 식량 저장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빚살무늬 토기’는 단순히 그릇이 아니라, 잉여 생산물을 보관하고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인류 최초의 저장 장치’였다. 특히 유골 분석에서 발견된 ‘외이도 골종’은 당시 인류가 바다 자원을 채취하며 전문적인 노동력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 노동이 아닌, 해녀와 같은 전문적인 생업 환경이 이미 존재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다. 노동의 전문화는 곧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현대 경제의 분업 원리와의도 맞닿아 있었다.



#### 4. 청동기 시대: 기술 혁신과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화

청동기 시대는 인류 경제사에 있어 ‘제1차 기술 혁신’이라 부를 만하다. 거푸집을 이용한 청동기 주조 기술은 고도의 기술력과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제작을 넘어 ‘전문 기술자’의 존재를 증명하며, 청동기라는 희소성 높은 재화가 지배 계급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청동검이나 청동 도끼는 당시 사회에서 고가치의 자본재로서, 소유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 짓는 계급 분화의 경제적 근거가 되었다.

농경 도구인 ‘돌괭이’와 ‘반달돌칼’의 발전은 생산력 증대에 결정적이었다. 특히 반달돌칼은 곡물의 수확량을 비약적으로 늘려주었고, 이는 사회 전체의 잉여 생산물을 발생시켰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잉여 생산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을 발생시켰고, 이를 축적한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낳았다. 농사라는 경제 활동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부의 축적과 사회 계급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진화했다. 청동기

시대 유물들은 도구의 발전이 어떻게 사회적 구조를 급격히 변모시켰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았다.





## 5. 유물이 말해주는 경제의 역사와 미래

국립중앙박물관 답사를 마치며, 도구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물건이 아니라 인류가 환경을 극복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석기에서 청동기 도구로 발전하는 과정은 인류가 더 큰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을 혁신해 온 '효율성의 역사' 그 자체였다. 선사 시대의 도구 발전이 계급 사회를 발생시켰듯, 현대 사회의 AI 기술 혁신 또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형태의 계층과 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다.

과거의 조상들이 이룩한 혁신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경제학도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갖추게 되었다. 단순히 과거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박물관 탐방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나에게 미래의 경제를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 체력을 길러준 경험이었다.